

# 일단 부분파업 강행... “사측 요구하면 교섭”

## 현대차 노사 임협 잠정합의...기아차 노조 행보 관심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29일 오후 임협 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기아차 노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님’적인 현대차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기아차의 올해 임단협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기아차 노조는 오히려 사측 연속 부분파업이라는 강경 노선을 택해 노사 합의안을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0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29일 밤 울산공장에서 운집한 시장과 이경호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접근,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당황한 기색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9일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놓고 동반파업을 벌였던 데다 1일 서울 양재동에서 연대집회까지 계획중이었지만 현대차 노조가 일방적으로 사측과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합의안을 도출하던 29일 기아차 노조는 5차 정의대책위원회를 열고, 30일과 1일, 2일 사측 연속 부분파업 실시를 결정해 더욱 비교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의 합의안 도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총 4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한 노조는 1일과 2일 매일 12시간의 부분파업을 예

## 연대집회 등 무산 당황 본교섭 일정 아직 못잡아 광주공장 손실 1900억대

고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 급여의 고정성 부분이 기아차 노조의 상황이 다른데다 기아차는 올해 임단협 논의가 이뤄져야 해 여러 사정이 다르다”며 “예정대로 파업일정을 소화하고, 사측이 진보된 교섭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아차 노사는 지난 25일 21차 본교섭을 진행한 뒤 아직 22차 본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더불어 기본급 15만61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8×8 근무제 도입, 완전월급제

쟁취(시급제 대신 월급제 전환), 상여금 800%(현 75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8만2000원, 성과급 250%+400만원, 격려금 100%, 장려금 3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가 아직 수평선을 달리는 만큼, 현대차 노사와 달리 파업 상황이 깊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지역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현대차의 교섭 결과에 준하는 선에서 기아차도 합의를 이뤘던 만큼, 기본급 등의 요구안에선 적정선이 나올 것”이라며 “하지만 통상임금 적용문제의 경우 노사가 전향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노조의 5차례 부분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 1만1000여대와 19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동룡기자textian@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0.09 (-6.51)

▲ 금리 2.30%(-0.03)

▲ 코스닥 573.22 (+3.95)

▲ 환율 1055.20원 (+1.40)

## 전남도 日무역교류단 1778만달러 수출계약

전남도는 지난 30일 “지난 27일까지 5일간 일본 무역교류단을 파견, 일본 기업 및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총 1778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교류단에는 공산품과 농식품 관련 업체 12곳이 참가했다.

무역교류단은 지난 24일 일본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참석 한 가운데 일본 바이어 70여 명을 초청,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완도 일호수산이 500만 달러, 여수 보양이 300만 달러, 함평 와이제이시가 200만 달러, 진도 대대호가 1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31만 달러의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다.

이러 26일에는 오사카에서는 기업별로 개별 방문상담을 추진, 447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나정주 전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일본 무역교류단 파견으로 전남의 우수한 공산품과 농식품을 일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전남산 우수 제품의 판로와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해외 진성바이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전남산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영양 많은 햇밤 드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 관계자들이 농협하나로클럽 남양점에서 작황이 좋아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햇밤 소비촉진을 위한 특판전을 열고 있다. 1일까지 진행되는 특판전에서는 광양지역에서 생산된 햇밤을 직거래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 광주·전남 제조업 기업경기 3개월만에 상승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기업경기가 3개월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지난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9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경기 BSI는 기업들의 경기동향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부정적 업체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를 뜻한다.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BSI는 5월에 73을 기록한 이후 6월 70, 7월 69, 8월 67로

석달 연속 하락했다가 이번엔 반등했다. 비제조업 9월 업황BSI도 75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10월 업황 전망BSI는 제조업의 경우 74로 2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75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체들은 경영여조사항으로 내수 부진(27.0%), 불확실한 경제상황(12.2%), 경쟁 심화(10.1%) 등을 꼽았다. 비제조업체들은 내수 부진(23.8%)과 경쟁 심화(11.75), 자금 부족(9.7%)을 주된 애로 사항으로 지목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위험·성과 공유...지역기업 금융지원 새장 열었다

### 광주은행 중소기업금융박람회 이틀 일정 마무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금융박람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0일 폐막했다. 광주은행이 전국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이번 박람회에는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소상공인공단, 신용보증재단 및 증권사 등 금융지원·창업·투자유치와 관련된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 지역 중기 관계자 및 예비 창업자 500여 명을 상대로 2700여 원대의 금융상담 실적을 기록, 지역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은행은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기업 지원 및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여신지원단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자금조달 고충을 덜어줬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과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형 금융을 도입, 은행과 기업이 사업위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동반성장의 관계를 점차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지역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은행,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프리메라리가 구장에 금호타이어 광고 뜬다

금호타이어가 스페인 축구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의 광고 스폰서십을 통해 유럽지역 브랜드 강화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앞으로 프리메라리가의 지난 시즌 우승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비롯, FC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등 총 17개 팀 구장에 골넷 광고(AD Net Goal) 및 A-보드 광고 등을 집행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2007년부터 4년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공식 플래티넘 스폰서 계약을 맺은바 있다. /임동룡기자textian@

## 새얼굴

### “위기의 지역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최선”

#### 정 석 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제7대 이사장에 선임된 정석주(58)씨는 임기 3년동안의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정석주 광은 비즈니스 이사는 이날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복수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3년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1981년 향토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에 입사해 30여년간 다양한 금융경험을 쌓았으며, 국

제금융역과 경영진단사 자격 등을 갖춘 금융전문가로 통한다.

정 이사장은 총 17명이 겸합한 이번 신임 공모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 기업경영 능력은 물론 신용보증재단의 미래 경영비전 제시와 경영 혁신 능력을 겸비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23년**  
기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발공인기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기발

## 2014 실전창업스쿨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중소기업청 국비지원 창업교육인 “2014 실전창업스쿨”은 자신의 능력과 감성을 창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여성여러분! 지금 신청하세요.**

강좌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참수마감	교육장소
ICT를 활용한 전통의상소품 제작 창업교육 (25회, 총 100시간)	14.10.1~14.11.7	14:00~18:00 (4시간/일)	10. 8(수)	국제직업전문학교(신세계점)
ICT를 활용한 캘리그라피 창업교육 (36회, 총 109시간)	14.10.1~14.11.24	18:00~21:00 (3시간/일)	10. 8(수)	국제직업전문학교(조대점)
ICT를 활용한 LED아트플라워 제작 창업교육 (13회, 총 76시간)	14.10.20~14.11.20	12:00~18:00 (6시간/일)	10.27(월)	LED아트플라워 평생교육원 외 (광주역 앞)

**교육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교육인원** | 각 과정별 25명

**교육내용** | 각 과정별 실기교육  
 • 창업이론 교육 및 창업 CEO 특강  
 • 해외판로 및 마케팅 강의  
 • 블로그 및 SNS 활용 교육

**교육비** | 전액무료  
 • 재료비(개인부담) 10만원(광주은행 053-107-393053 예금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

**수강신청** | (온라인접수) http://www.wbiz.or.kr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실전창업스쿨 신청

**특전** | 교육 수료 시 수료증 교부  
 • 창업전문가 컨설팅 기회 제공

**상담전화** | 062-527-161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센터  
 • 062-352-0114 전통의상소품 제작교육  
 • 062-223-6123 캘리그라피 창업교육  
 • 062-575-6469 LED아트플라워 제작교육

주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센터 주최 중소기업청